

종교시로서 新羅 鄉歌와 T.S. 엘리엇 엮어읽기

서철원*

〈차례〉

1. 문제 제기와 방법론의 근거
2. 종교적 문제상황의 발생-〈慕竹旨郎歌〉와 〈J.A. 프루프록의 戀歌〉
3. 종교적 공간과 시간의 중첩-〈讚耆婆郎歌〉와 〈聖灰수요일〉
4. 彼岸의 상징을 향한 움직임-〈祭亡妹歌〉와 〈머리나(Marina)〉
5. 맺음말

1. 문제 제기와 방법론의 근거

본고는 신라 향가에서 서정성의 근간을 이루어 온 종교적 인식을 英美의 종교시인 Thomas Stearns Eliot(이하 ‘엘리엇’으로 略稱: 1888~1965)의 작품세계와 견주어 읽음으로써 향가가 지닌 종교적 서정성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개의 문화적 토양에서 이루어진 종교시와의 비교를 통해 서정시로서 향가의 개성에 대한 논의를 銳角化하는 동시에, 동서양 문화의 보편적인 흐름 위에서 향가의 세계문학사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西歐에서는 종교인들의 권력이 17세기까지도 상당했고, 문학 작가들은

“진지한 종교시의 창작을 통해 종교인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얻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 시가 편향적인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일반성과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비판적 논리가 아니라 순화된 감성을 통하여 문학과 종교의 거리를 단축”¹⁾시켰다고 평가받는 George Herbert(1593~1633) 같은 시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예술과 신학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던 이 시기 文壇에서는 문학의 종교적 가치를 입증하면서도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이후 영미의 종교시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작가군²⁾을 거쳐 발전한다.

20세기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엘리엇은 종교문학의 범주를 ①종교에 관하여 쓴 글, ②특별한 종교적 의식의 산물, ③종교의 大義를 전파하기 위한 선전문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³⁾ 한국 고전시가에서 경기체가와 불교가사가 ③에 해당한다면 偈頌과 禪詩는 ②에, 經傳은 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문문학으로서 ③보다 ②에 가까운 역사적 장르가 있을까? 본고는 향가의 시적 성취가 ②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며, 영미의 종교시와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⁴⁾ 그 근거는

- 1) 이준학, 『조지 허버트의 종교시에 나타난 보편적 의식』, 『문학과 종교』 12권 2호, 문학과 종교학회, 2007, 64쪽.
- 2) 관련 논의는 송기호,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종교시』, 『신영어영문학』 39, 신영어영문학회, 2008, 75~94쪽 참조.
- 3) T.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London: Faber&Faber, 1976. pp.389~391(이준학, 위의 글. 64~65쪽 재인용).
- 4) 한편 종교시로서 향가의 특질에 대해서는 향가에 드러난 불교용어의 문학적 맥락에 주목한 초기 연구 이래로, 현실적 주술성이 강한 밀교적 성향에 집중(김승찬, 장재진, 이연숙)하거나 화쟁의 연술을 문화기호학 일반으로 확장시킨 성과(이도흠)가 있었다. 그러나 영세한 숫자의 향가 작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종교이론, 문학론의 탐색을 병행하면서 논지 전개과정에서 작품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속요, 현대시와의 ‘엮어읽기’(박노준, 나정순)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극복이 시도되기도 했는데, 본고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다른 장르와의 ‘엮어읽기’가 자료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게 되었고, 종교문학으로서 향가와 가장 닮은꼴을 지닌 작가로서 T.S. 엘리엇에 주목하게 되었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향가가 도달했던 것으로 앞서 논의한 ‘종교적 인식과 서정성의 심화’, 말하자면 종교적 서정성⁵⁾의 범주로 논의할 만한 영역이 Herbert가 시도한 ‘순화된 감성을 통한 문학과 종교의 거리 단축’을 연상시킨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혜성가> · <서동요>의 주술성이 그 다음 세대에 <풍요> · <원왕생가>의 종교성이 되고, 결국 한 세대 더 지나 <모죽지랑가>의 서정성에 이르는 향가의 발전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보다는 祈福의 慾望을 信仰의 동기로 삼기를 거부하고 세속적 인생에 대한 환멸 탓에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삶을 希求하는 종교적 결단의 공통성을 더 큰 이유로 삼고자 한다. 바로 이 공통성의 영역이 향가와 엘리엇을 엮어 읽는 근거이다. ‘죽음에 대한 친근함과 예찬’은 비단 향가만이 아니라 신라인의 생사관 전반을 이루는 주제이기도 하다.

한편 엘리엇은 파스칼이 종교에 귀의하는 과정을 거론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파스칼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들은 가뭄이나 암흑의 밤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다. 허나 성격상으로 병든 자이거나 영혼이 非純粹한 자들이 이와 유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에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 그러나 절망은 또한 믿음의 환희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序曲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⁶⁾

사변적인 인간이 종교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절망’의 체험이 必然的인

5) 본고에서 ‘종교적 서정성’이란 종교 텍스트가 기복적, 현실적 요소를 호소하는 수준을 벗어나 수신자와의 정서적 紐帶를 통한 공감, 감응의 형성을 목적으로 삼는 성향을 지칭한다. 종교문학의 목적이 一方的 교화가 아닌 정서의 쌍방향적 소통을 지향할 때, 그 본질은 서정시에 한걸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종교적 서정성’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6) T.S. Eliot, Selected Essays. London: Faber&Faber, 1976. p.412(김명옥, 『엘리엇의 종교전환』, 『영미어문학연구총서 4-T.S. 엘리엇』, 민음사, 1978, 91쪽 재인용).

을 제기하고 있다. ‘절망을 통한 환희’에는 ‘죽음 저편의 새로운 삶’과 상통하는 屈曲의 국면이 있다. 실상 서정시로서의 성취가 높다고 평가받아 온 향가는 ‘나’의 곁에 머물던 존재의 쇠락·소멸·죽음과 그로 인한 ‘나’의 ‘절망’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무상감과 생사의 윤회는 생명에 대한 절망에 이어진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다 고통[死生苦兮]”이라는 蛇福의 짧게 줄인 계승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절망과 무력감의 토로이다.⁷⁾ 엘리엇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류의 생사에 대한 절망이 종교적 환희의 성취를 위해 필연적이다.

본고는 죽음과 종교적 인식을 제재로 한 신라 향가와 엘리엇의 작품을 비교하고자 한다. 향가와 비교 대상으로 여러 종교시인 가운데 엘리엇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거론했던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삶을 希求하는 종교적 결단의 공통성 때문이다. 게다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엘리엇은 시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문학관과 사상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이론가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비교는 ①종교적 문제상황의 발생(<慕竹旨郎歌>와 <J.A. 프루프록의 戀歌>), ②종교적 공간과 시간의 중첩(<讚耆婆郎歌>와 <聖灰수요일>), ③彼岸의 상징을 향한 움직임(<祭亡妹歌>와 <머리나(Marina)>)의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⁸⁾

2. 종교적 문제상황의 발생-〈慕竹旨郎歌〉와 <J.A. 프루프록의 戀歌〉

7) 『三國遺事』 권4 義解 제5 <蛇福不言>.

8) 향가 어석은 류렬, 『향가연구』, 박이정, 2003을 따랐다. 이 어석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의 성과 가운데 가장 원전을 존중하면서 일관성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향찰 원문은 附記하지 않고 향찰역과 현대역만을 인용하되, 행 구분은 『삼국유사』 원전을 따랐다. 엘리엇 시의 번역은 이창배, 『T.S. 엘리엇 전집-시와 시극』, 동국대 출판부, 2001을 따랐으며, 이하 각주를 달지 않고 해당서의 쪽수만을 인용문 말미에 밝힌다.

향가의 서정성은 <모죽지랑가>에 이르러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춘다. 이전 시기에서의 주술이나 종교 등의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물이 아닌, 서정주체의 감성 표현물로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북받치는 감정을 詩로 표현하게 된, 이전의 향가에 없었던 一念의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죽지랑의 쇠락 또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였다. 시간의 흐름 앞에 無常히 늙고 죽어가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절망'이였다.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을 향한 마음'을 통해 향가의 서정성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모죽지랑가>의 전승담에서 죽지랑을 竹旨嶺 居士의 後身이자 彌勒의 화신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던 점⁹⁾을 되짚어보면, 죽지랑의 형상은 결국 종교적 '聖者'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간봄 그리미	지난 봄 생각해보니
모드 사르사 우를이 시름	그대 살아있지 못한 것이야 울음과 시름
아름 나시ㅎ기시흔	어진 마음 나타내시은
지시 흐리니름 디디 니지	그 모습 해지남-세월아 더디가자
눈 도라달 소리히	눈 돌아칠 깜박 사이에
맛보기라디 지소하리	그 분을 다시 만나 보게 되오리
나하 그릴 마스미 니홀 길	그대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다닐 길
다보지시 굴히 잘 밤 이시하리	다북덕쑥 구렁에 잘 밤 있으오리.

語釋이 다소 불투명했던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 내면과 외면의 공간을 對稱시킨 것으로 구조화된다.

간 봄 계시지 못한 시름 좋았던 과거의 모습 늙어가는 현재의 모습	(1행)-(과거) : 흘러간 과거의 시간 배경 (2행)-(현재) : 체제의 不在로 인한 현재의 "시름" (3행)-(과거) : 아름다웠던 과거의 형상 (4행)-(현재) : 쇠락해가는 현재의 형상
눈을 돌이키는 나 만날 수 있음(확신)/없음(불안) 남을 그리워하여 가는 길 다보짓 구렁에 잘 밤	(5행)-(외형) : 서정주체의 움직임 (6행)-(내면) : 현재 상황에 대한 마음의 정리 (7행)-(외형) : 남을 향한 행동의 표현 (8행)-(내면) : 서정주체의 확신과 의지

이 대칭을 대립이 아닌 조화, 융화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서정주체와 죽지랑 사이의 交感, 수용자의 서정주체에 대한 共感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感'의 소통은 서정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본고의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물 체제에 대한 감성이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知覺과 더불어, 주체의 내면과 외형 사이의 작용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죽지랑의 不在는 서정주체가 자신이 처한 공간과 시간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엘리엇에게도 특정 인물의 형상화가 공간, 시간의 재인식에 이르는 모습은 초기 시부터 출현하고 있다. 가령 <J.A. 프루프록의 戀歌>는 엘리엇의 초기 습작시으로 관능적 연애를 꿈꾸는 중심인물 프루프록은 청년 엘리엇의 자화상이라는 점에 異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갑시다, 그대와 나,

Let us go then, you and I,

지금 저녁은 마치 수술대 위에 에테르로 마취된 환자처럼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Like a patient etherized upon a table;

우리 갑시다, 거의 인적이 끊어진 거리와 거리를 통하여

Let us go, through certain half-deserted streets,

값싼 일박여관에서 편안치 못한 밤이면 밤마다 The muttering retreats

9) 『三國遺事』 紀異 제2 <孝昭王代 竹旨郎>.

중얼거리는 말소리 새어나오는 골목으로 해서

Of restless nights in one-night cheap hotels

굴껍질과 톱밥이 흩어진 음식점들 사이로 빠져서 우리 잡시다.

And sawdust restaurants with oyster-shells:

-<J.A. 프루프록의 戀歌>(이창배 역, 3쪽)

<J.A. 프루프록의 戀歌>는 ‘나’가 ‘그대’에게 말해주는 어조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대’와 ‘나’는 사실상 동일인¹⁰⁾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자신과 또 한편으로 그것을 동경하는 자신을 분열시킨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맥락의 이중성은 엘리엇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신성한 것과 희롱적인 것,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현재의 것과 영원한 것, 속된 것과 신성한 것—이러한 사물의 양면적 태도, 복합된 의미를 동시에 병치하는 것이 엘리엇시의 특질인데, 그는 그런 시적 방법을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에서 배웠고, 다시 그것을 영국의 17세기 형이상학과 시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¹¹⁾

분열된 상태에서도 “Let us go”라 말하고는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대와 나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모죽지랑가>가 ‘聖者’에 대한 선명한 그리움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작품에서 중심인물 프루프록에 대한 작가의 감정은 불투명하다. 그것을 청년기에 자아의 내면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에 연결시켜도 좋을지 생각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라 하여 시간[evening]이 주는 느낌의 확산을 공간 소재[sky]와 對應시킨 부분이 주목된다.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함께 머무는 시간은 하늘과 땅을 이룰 만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뒤이어 “Like a patient etherized upon a table”이라는 직유를 통해 이 시간과 공간은 결코 건강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서정주체 자신이 분열되어 정신적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열된 두 개의 자아는 밤이면 밤마다 거리와 거리, 골목과 그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아슬아슬한 동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녁은 하늘과 대칭하는 靜的인 시간이라면, 밤은 이리저리 공간을 어지럽게 이동하는 動的인 시간이다.

향가와 엘리엇의 시에서 共히 인물 형상을 통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성적 인식이 심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J.A. 프루프록의 戀歌>에는 <모죽지랑가>와 같은 정돈된 대칭이나, 간절한 마음의 표출로서의 이동[“그리워하는 마음에 다닐 길”]과는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 차이의 원인은 죽지랑은 ‘성자’ 형상인데 반해 프루프록이 분열증 앓는 난봉꾼이라서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모죽지랑가>의 시간과 공간이 전체적·추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J.A. 프루프록의 戀歌>의 시간과 공간은 단편적·경험적이었던 것에 있다.

먼저 시간을 비교해 보자. 죽지랑의 늙어가는 모습은 서정주체에게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切感케 하였다. 그래도 과거는 ‘봄’으로 함축되었지만 현재는 不在의 시간이다. 과거와의 대비를 통한 현재의 재해석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각오로 연결되어, 이 작품은 서정주체의 결단과 각오로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유기적 관계를 엘리엇에게서는 찾기 어렵다. 프루프록은 ‘저녁’과 ‘밤’을 겪지만 이들은 엇비슷한 정신상태가 때론 정적으로 때론 동적으로 연장, 반복되는 경향성을 의미할 따름이다. 프루프록의 욕망과 방향은 끝내 해결되지 않고, 초월 또는 달관, 체념 등에 收斂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공간을 비교해 보자. <모죽지랑가>에는 구체적 공간 인식이 없지만, ‘나’의 외면과 내면 사이의 照應에서 보이는 외면에 대한 시각을

10) “you and I”는 사실상 프루프록 한 사람의 분열된 양면임(이창배, 555쪽의 작품해설에 따름).

11) 이창배, 『엘리엇의 시세계』, 『영미어문학연구총서 4-T.S. 엘리엇』, 민음사, 1978, 26쪽.

넓은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관념으로 다루어 봄직하다. 외면의 움직임은 눈돌림으로부터 全身에 파급되고, 그에 따라 일말의 불안감은 永續적인 신념으로 자리한다. 그 중심에 '성자' 형상으로서 죽지랑이 존재하고 있다. 죽지랑을 눈돌려 바라보는 '나'가 죽지랑을 향하여 움직이는 '나'가 되면서, 만남에 대한 불안은 재회를 향한 확신으로 탈바꿈한다. 프루프록의 외면을 향한 움직임은 거리와 거리,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분열된 자아들끼리의 긴장 가득한 동행의 반복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J.A. 프루프록의 戀歌>에서의 공간 또는 시간의 단편에 대한 성찰이 엘리엇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속적 욕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뿌리 깊은 절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통해, 엘리엇은 체험적 인식 저편에 儼存하는 종교적 실재를 탐구하기 위한 의욕을 얻는다. <J.A. 프루프록의 戀歌>에서의 불안한 인물 형상은 작가에게 종교적 시·공간의 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 작품의 정서가 현대인의 불안 또는 미국적 황폐함에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정주체 개인에게 지닌 의미에 보다 주력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시간의 단편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며, 이러한 단편의 배후에 있는 실재성에 대한 탐구인데, 이것은 실제 엘리엇 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인 것이다.¹²⁾

한편 다음 작품에서 청년기의 엘리엇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이, 성인들이 말하듯이,
If Time and Space, as Saged say,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Are things which cannot be,

12) 김우창, 『전통과 방법』, 『영미어문학연구총서 4-T.S. 엘리엇』, 민음사, 1978, 52쪽.

죽음을 알지 못하는 태양이 The sun which does not feel decay
우리보다 더 위대할 것이 없지. No greater is than we
신이여 그대, 왜, 우리는 백세를 살기 위해
So why, Love, should we ever pray
항상 기도해야 하나요? To live a century?
하루를 사는 나비는 The butterfly that lives a day
영원을 사는 것이지요 Has lived eternity.¹³⁾

<Lyric>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안정된 각운의 律調를 통해 서정시다운 일면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본고에서 향가와와의 주 대상으로 삼은 내용·주제적 측면을 유념하면, “The sun which does not feel decay / No greater is than we”, 그리고 “The butterfly that lives a day / Has lived eternity.”와 같은 부분에서는 동양철학의 영향을 받은 듯한 상대주의적 시간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신라 향가가 <모죽지랑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세대에서 인물제재, 공간과 시간에 대한 종교적 의미 부여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성취한 것과는 달리, 엘리엇은 세속적 욕망으로 인한 자아 분열과 그로 인한 좌절을 종교적 열망의 동기로 삼았다.¹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엘리엇의 열망이 향가와 만나고 갈라서는 부분을 논의하기로 한다.

3. 종교적 공간과 시간의 중첩-〈讚耆婆郎歌〉와 〈聖灰수요일〉

8세기 접어들어 ‘사람을 향한 진심’은 <찬기과랑가>와 <제망매가>를

13) T.S. Eliot, Poems Written in Early You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9). p.9(정갑동, 『엘리엇의 생애에 미친 인도의 영향』, 『T.S. 엘리엇의 시와 불교철학』, 동인, 2006, 43쪽에서 재인용).

14) 각주 9)의 인용문 참조.

통해 인물 형상에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공간과 시간의 질적 전환에 따라 인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의 한결 미묘한 시적 장치로 전환한다. <찬기파랑가>는 다음과 같다.¹⁵⁾

우루리 티미	우러리 보는데
나토신 다라리	환히 비치는 밝은 달이
흰구름 조초 부더간 안디	흰 구름을 좇아 떠 가는 것이 아닌가
물이 바른 나리하히	푸른 물 내물에는
기나 히 지시 이시고라	기바화랑의 모습이 비쳐 있구나
이로 나라시 비라라히	이로내(강)의 벼랑에
나라 다니기 다비시혼	화랑이라 길이 전하여 지니게 되시운
마스미 가시홀 조초노하저	마음의 그 끝을 좇아가고 싶구나
아으	아으
자시시 가지 늙디고	찾가지처럼 그 뜻 높고
서리 모르느홀 가시한이라	서리도 모르올 굳센 화랑이로다

이 작품은 가장 語釋이 불투명한 향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어석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서정주체의 시선이 지나가는 방향은 달라질 수 없다. 주체는 ‘우러리보고¹⁶⁾(上) → 물속 또는 물가를 보고(下, 遠) → 벼랑을 보는(中, 近)’ 방향으로 시선을 움직인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기파랑은 존재하고 있다. 하늘에는 기파랑의 상징물인 흰 구름,

물속에는 기파랑의 그림자, 강 벼랑에는 기파랑이 지니던 마음의 끝이 있다. ‘나’의知己였던 기파랑의 육신은 소멸했지만, 오히려 육신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늘, 어디서나 기파랑과 함께 하는 것을 因緣 삼아 ‘나’는 환히 비치는 달이 되어 기파랑의 뜻을 이어받고, 그 마음의 끝까지 찾가지처럼 높았던 굳세었던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知己의 죽음은 절망을 부른다. 그러나 <찬기파랑가>의 서정주체는 그 절망에 빠져 허무감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의 뜻과 자취가 ‘나’의 시선, ‘나’의 생명력과 늘 함께하고 있다고 자각한다. 심지어 그의 생명은 ‘나’의 눈이 닿는 모든 세상으로 擴散되었다고 信仰한다. 이 신앙을 통해 주체는 주변의 공간과 감성을 주고받으며, 하늘·물·벼랑은 심드렁한 공간적 배경이 아닌 意象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마디로 “그 뜻이 매우 높았던[其意甚高]” 聖者 기파랑은 죽어서 이 세상, 宇宙가 되었다. 非常한 존재가 죽어 이 세상이 되었다는 屍體化生의 발상은 班固를 비롯한 창세신화에도 더러 보인다. 그러나 창세신화의 시체 화생 話素로부터 주체의 객체 사이의 교감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 <찬기파랑가>에서는 서정주체에 의한 인물 체재와 주변 공간의 재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재해석에 따라 발생한 信仰은 절대자를 향한 일방적·단선적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知覺으로써 주변 공간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그 주변 공간에 속하는 여러 사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本性(nature)도 새로이 만들어가는 雙方向的·다층적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 하겠다. 재인식된 주변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만드는 계기가 기파랑의 죽음으로 인한 傷心·절망이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엘리엇의 작품 가운데 <찬기파랑가>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체재로 삼은 것은 찾지 어렵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의 중첩을 통해 공간에 대한 관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성향은 자주 보인다. 다음의 <聖灰수요일>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중첩된 언급은 일시성과 영속성에 대한 성찰로

15) 월명사의 <도술가>가 충담사의 <안민가>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월명사의 <제망매가>도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보다 먼저 지어졌으리라 추정하기 쉬운데, 꼭 그렇게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본고는 이들 작품의 선후 관계를 논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다만 <찬기파랑가>가 공간에 대한 관념을 토대로 詩想을 전개하고 있다면 <제망매가>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찬기파랑가>를 먼저 다룰 뿐이다.

16) 어석자에 따라 아 부분을 “열치매(양주동)”, “흐느끼며 바라보매(김환진)” 등등으로 다르게 보지만, 다음 행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시간은 언제나 시간, 장소는 언제나

Because I know that time is always time

그리고 다만 장소일 뿐임을 나는 알 알 알

And place is always and only place

현실적인 것은 다만 한때에만

And what is actual is actual only for one time

그리고 다만 한 장소에서만 현실적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And only for one place

나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임을 기뻐하고

I rejoice that things are as they are and

그 축복받은 얼굴을 거절하고

I renounce the blessed face

그 목소리를 거절한다. And renounce the voice

나는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Because I cannot hope to turn again

결국 이래서 나는 기뻐한다. 기쁨의 토대가 될

Consequently I rejoice, having to construct something

무엇을 세워야 하기에 Upon which to rejoice

시간과 공간이 실제[actual]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성이 “only for one time”, “only for one place”, 말하자면 고정된 본질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生滅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생멸에 따른 고통을 피할 수 없음에도 사물의 시·공간적 制約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things are as they are”의 섭리를 기쁨[rejoice]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화자는 한술 더 떠 축복의 얼굴과 목소리를 거절[renounce]하고 “I cannot hope to turn again”이라고 과거에 느꼈던 絶

望을 直面하고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마다하기는커녕 그것을 기뻐한다[rejoice]고 강조하며 그로부터 기쁨의 토대를 만들리라 [“having to construct something / Upon which to rejoice”]고까지 선언한다. 이러한 逆說을 바탕으로 다음 연에서 엘리엇은 現世를 보는 관점을 示唆하고 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실 것을 신에게 기도하고

And pray to God to have mercy upon us

내 자신과 너무 많이 토론하고 And I pray that I may forget

너무 많이 설명하는 이런 문제들을

These matters that with myself I too much discuss

스스로 잊게 해주십사 비나이다 Too much explain

나는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again

이런 말들로 하여금 행한 것과 Let these words answer

다시 행해선 안 될 것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시고

For what is done, not to be done again

그 심판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지 않게 하소서

May the judgement not be too heavy upon us.

-<聖灰수요일>(이창배 역, 69~70쪽)

이 부분은 앞 연에서의 역설적 기쁨[rejoice]의 근거라 할 만한, 神과 ‘나’ 사의 관계 설정에 해당한다. 신이 관리하는 現世에서 나는 “may”로 시작하는 기도를 두 차례 올림으로써 신과 나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기도는 구체적 상황에서 주체의 의지를 드러낸다기보다, 신의 攝理로써 문제를 해결해주길 비는 일방적 懇請에 다소 가까워 보인다. 이 섭리 덕분에 앞에서의 기쁨이 가능했다고 정리하면 그만일까?

<찬기과랑가>의 문제적 상황은 서정주체와 공간 요소들 사이의 쌍방

향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해결되어 간다고 앞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그 대신 神에게 기도[“prey to God”]라는 發話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런가 하면 <찬기과랑가>의 서정주체가 인물 제재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과는 사뭇 달리 모든 논쟁의 망각[forget]을 懇求하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聖灰수요일>에서의 現世는 신께 기도하고 다 잊을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 이어서 “I cannot hope to turn again”을 다시 한 차례 반복하고는 “May the judgement not be too heavy upon us”라 하였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不徹底한 자세의 반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일종의 겸허함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당하다. 앞 연의 기쁨[rejoice]과 거절[renounce]의 병행을 통한 역설적 깨달음이 ‘나’의 우월함에만 말미암은 所産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主宰하여 ‘나’의 행동과 생각에 必然을 부여하는 존재가 있다.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도 기과랑의 자취를 對面하여 그 마음의 끝까지 따를 수밖에 없듯이, 주체로 하여금 “I cannot hope to turn again”이라 말하면서 싸구려 축복을 거부하고 고통스런 사명을 기쁨으로 認知하게끔 하는 超越者를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서정주체의 인식과 행동에 필연적 의미를 부여하는 超越者라는 점에서 이제 기과랑과 神은 동의어가 된다.

이 겸허함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兩 초월자들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기과랑은 죽음 저편의 彼岸에 도달하여 宇宙가 되었으며, 신은 애초부터 불사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다소간 종교적 깨달음에 다가갔더라도, <찬기과랑가>와 <聖灰수요일>의 화자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실상 죽음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탓에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턱없이 협소하게만 느껴진다.

겨울날 새벽 갈색 안개 속으로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dawn,
군중이 런던교 위로 흘러간다. 저렇게 많이,

A crowd flowed over London Bridge, so many,
나는 죽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멸망시켰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I had not thought death had undone so many.

-<황무지(wasteland)-I The Burial of the dead>(이창배 역, 49쪽)

앞서 살펴본 <聖灰수요일>은 시간과 공간의 ‘실재[actual]’ 여부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영속성의 문제, 신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반면에 <황무지(wasteland)>의 이 부분은 “非實在의 도시[Unreal city]”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엘리엇은 시·공간은 생멸하기 때문에 ‘실재’인 반면,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현세의 공간은 도리어 ‘비실재’라고 표현했다. 군중이 런던교 위로 흘러가듯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 관념은 너무나 현실적이라 현실로 인정하기 싫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냉엄한 통찰을 포함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현실감각을 상실하게 할 뿐만 불안은 건전한 감각과 지각을 마비시킨다. 이같은 공포는 狂信徒를 부추기기 좋은 험박의 소재이기도 하다. 위로 흘러 공포와 불안으로 인듯 절망을 堪耐하면서 값싼 축복을 거절하는 쪽에 참다운 통찰을 있다고 엘리엇은 말한다. 신은-마치 기과랑이 그러했듯이-어느 곳에나 自在하기에 ‘나’는 죽음 저편의 세계, ‘나’가 소멸한 이후의 시·공간에 대하여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聖灰수요일>과 <황무지(wasteland)>를 통해 엘리엇의 現世에 대한 인식을 看取하고, 그의 神觀을 <찬기과랑가>의 서정주체가 인물 제재에 대하여 지닌 태도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죽음’의 문제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념을 뒤흔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제 <제망매가>를 통해 누구나 共感할 만한 슬픔의 영역을 살펴본다.

非實在의 도시, Unreal city,

4. 彼岸의 상징을 향한 움직임-〈祭亡妹歌〉와 〈머리나(Marina)〉

앞 장에서 〈찬기과랑가〉의 인물 제재와 엘리엇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神 사이에 초월자로서의 동일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시·공간의 일시성과 영속성의 문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堪耐하면서 종교적 기쁨[悅樂]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한 시·공간의 질적 전환을 다룬 〈제망매가〉를 살펴 보겠다. 〈제망매가〉는 ‘누이의 夭折과 재회’라는 제재가 〈머리나(Marina)〉에 보이는 ‘딸의 죽음과 歸還’이라는 화소(motif)와 일치하여 엘리엇 시와 碎어 읽을 餘地가 가장 크다.

죽살이 길흔	죽고살고 하는 길은
이리 이시하미 저홀이고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어 두렵고
난 가는다 말도	난 간다는 말도
모든 나르고 가느니시고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인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더리 부더러덜 낚다비 흥든 가지라 나고	
이리저리 떨어질 나뭇잎처럼 한나무 한가지에서 떠나가도	
가는 곧 모르흔더	가는 곳 모르는가
아으	아 미다덜아 마소나홀 나 길 다스라
	기드리고다
	아미타 절에서 만날 나이나 길을 닦아
	기다리리라.

〈제망매가〉에서는 5~7행의 樹木 비유가 가장 주목을 받아 왔다. 이 부분은 비유로서도 훌륭하지만, 1개의 문장만으로 현재[“어느 가을 이른 바람”]-과거[“한가지에서 떠나가도”]-미래[“가는 곳”]를 압축한 “因果同時”¹⁷⁾에 가까운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엘리엇의 詩世界에서도 과거-

현재-미래의 대칭쌍은 나름대로 비중이 있다. 그러나 엘리엇은 이들을 선후·병렬관계라기보다 일종의 모순적 포함관계로 인식하였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Time present and time past

아마 모두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고,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네 개의 四重奏〉中 〈번트 노트(Burnt Norton)〉(이창배 역, 121쪽)

역시 한 문장으로 과거·현재·미래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錯綜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착종된 時祭들은 결국 ‘順換(circulation)’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제망매가〉의 수목 비유로부터 순환의 구조를 읽어낼 수는 없다. 수목 비유는 전반부의 “죽살이 길”과 후반부의 “미타찰”을 연결하면서 인식의 乖離를 방지하고 있다.

여기서 “죽살이 길”은 輪回의 길이다. 인연이 다하여 사별한 누이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또 시간이 기도 하다. 한편 “미타찰”은 往生하여 ‘영원한 죽음[涅槃]’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서정주체는 이 곳을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자, 또 시간으로서의 기능에 한정시켰다. “彌陀”에 “질[刹]”을 덧붙인 이 기묘한 합성어는 마땅히 불교 교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서정주체는 불교의 목표인 ‘영원한 죽음[涅槃]’을 무시하고,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통해 열반도 윤회도 아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공간으로 淨土를 재창조하였다. 미타찰은 〈제망매가〉의 시인이 신라 대중의 동의를 받아

17) 均如의 각종 저술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개념으로, 因 또는 因緣이 생성되는 그 순간에 결과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淸어는 이를 숙명론보다는 일종의 예정설에 가깝게 활용하고 있다.

창조한 세계이다. 여기서 무엇이 미타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가 돌이켜 보면 그것은 누이를 향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다. <모죽지랑가>에서도, <찬기과랑가>에서도 ‘사람을 향한 마음’은 詩想을 전개하는 큰 축이었다. 이제 <제망매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시간을 계기로 하여 태어난 이 마음이 불교를 벗어난 새로운 종교적 공간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엘리엇은 <제망매가>와 비교할 만한, 溺死한 줄만 알았던 딸을 그리워하다 되찾는 과정을 소재로 삼은 작품 <머리나(Marina)>를 창작하였다.¹⁸⁾ <제망매가>에서 서정주체가 나중에 누이와 재회하는 모습이 이뤄지는 않았을까 상상할 만하지만, 역시 미묘한 차이가 있다.

- 이 곳이 어디냐, 어느 지역,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이나?

Quic hic locus. quae regio, quae mundi plaga

무슨 바다 무슨 해안 무슨 회색 바위 무슨 섬들

What seas what shores what grey rocks what island

뱃전을 훔치는 무슨 물 what water lapping the bow

그리고 소나무 향기와 안개 속에서 노래부르는 티티새

And scent of pine and the woodthrush sing through the fog

무슨 영상이 떠오르느냐 What images return

아 나의 딸이여. O my daughter

1행에서의 나열은 마지막 연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이 부분은 바다

18) 시의 제목 ‘머리나’는 셰익스피어의 傳奇的인 詩劇 <페리클리스Pericles>(1608)에 등장하는 주인공 페리클리스 왕의 딸의 이름이다. 그 이름 머리나는 바다(라틴어 mare)와 관계가 있다. 머리나는 바다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져 죽을 줄 알았다가, 나중 성장해서야 역시 바다에서 산 모습으로 기적적으로 아버지와 재회한다. 이것은 아버지 페리클리스에게 있어서 죽은 딸의 재생Rebirth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창호, 『머리나(Marina)』, 『T.S 엘리엇의 종교시-그 이해와 감상』, 중앙대 인문학연구소, 1999, 75쪽.

로부터 섬에 이르기까지 시선을 左右로 이동시키면서 딸의 모습을 찾는 장면이다. 시선의 이동을 통한 전개는 <찬기과랑가>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서정주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더라도 기과랑의 자취를 目睹할 수 있었던 <찬기과랑가>와는 다르게, <머리나>에서는 딸의 모습이 바다로부터 “떠오르는 영상[What images return]”으로 집중된다. 기과랑 또는 <제망매가>의 누이는 이미 冥界로 떠나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머리나는 이 세상으로 歸還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영상으로 묘사되었다. “미타찰” 같은 별개의 공간이 설정되지 않은 점은 <제망매가>와 <머리나>의 차이점이다. 머리나는 죽음을 통해 彼岸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존재가 되었다.

결국 죽음인 Those who sharpen the tooth of the dog, meaning

개 이빨을 날카롭게 하는 자들 Death

결국 죽음인 Those who glitter with the glory of the hummingbird,

벌새의 영광으로 번쩍이는 자들 Death

결국 죽음인 Those whosit in the sty of contentment, meaning

만족의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자들 Death

결국 죽음인 Those who suffer the ecstasy of the animals, meaning

동물의 황홀에 빠지는 자들은 Death

모두 바람에 소나무 숲결에

Are become unsubstantial, reduced by a wind,

티티새 노래의 안개에 작아져 무형화한다,

A breath of pine, and the woodsong fog

장소에서 용화된 이 은총에 By this grace dissolved in place

‘죽음’의 이중성을 더러운 肉身의 이미지[“the tooth of the dog: 탐욕”, “the glory of the hummingbird: 교만”, “the sty of contentment:

나태”, “the ecstasy of the animals: 성욕”)로 형상화시켰다. 여기서의 ‘죽음’은 다음 연에서 “無形化[unsubstantial]”라고 추상화되는가 하면 “By this grace dissolved in place”라 하여 은총(grace)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有形의 것들을 소멸시키고 無形화된 대상들이 영적 재생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본다. <머리나>는 피안의 세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유형과 무형을 대립시키고 있다. <제망매가>에서 피안의 세계를 현세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요컨대 <제망매가>가 현세의 인간관계[因緣]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안의 세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라면, <머리나>는 自我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 일부를 포기해야 은총(grace)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관점의 차이를 지녔다.

이어지는 부분은 재회의 기쁨과 어리둥절한 표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靈·肉의 차별적 인식은 다음 장면에까지 지속된다. 이와 같은 차별적 인식은 딸의 歸還이 完全한 것인지 여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딸의 귀환이 완전한 것이라면, 왜 서정주체는 환희만 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를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지속하는지 의문이다.

龍骨翼板은 물이 새고, 이음매는 틀어막아야 한다.

The garboard strake leaks, the seams need caulking.

나를 초월한 시간의 세계에 살기 위하여 사는

This form, this face, this life

이 형체, 이 얼굴, 이 목숨.

Living to live in a world of time beyond me: let me

이 삶을 위하여 내 삶을 버리련다. 그리고 그 말 없는 것 소생한 것,

Resign my life for this life, my speech for that unspoken,

별된 입술, 그 희망, 그 새 배들을 위하여 내 말을 버리련다.

The awakened, lips parted, the hope, the new ships.

삶을 위해 삶을 버리고 말을 위해 말을 버리겠다고 한다. 앞의 삶과 말이 靈인 것이라면 뒤의 삶과 말은 肉인 것에 가깝다. <제망매가>는 과거-현재-미래를 融會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살이 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공간 인식에 이르기도 했는데, <머리나(Marina)>는 分別智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육의 철저한 구분과 밖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강조는 부활한 인간은 예전의 자신이 지닌 어떤 특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肉을 죽여야 靈이 영원해질 수 있다는 教理 본연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첫째연을 되풀이하며 시를 끝맺고 있다.

<제망매가>와 <머리나>는 사뭇 대조적이다. <제망매가>가 彌陀淨土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여 서정주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머리나>는 교리에 따라 靈과 肉을 구별하고 자아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후자를 버리는 쪽에 救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망매가>의 공간과 시간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머리나>는 과거·현재·미래, 이승과 저승, 영·육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라 향가와 엘리엇은 彼岸을 거친 새로운 삶을 희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서정적인 향가는 대체로 ‘죽음 저편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T.S. 엘리엇이 종교의 동기로서 제시했던 ‘절망을 통한 환희’와 상통하는 屈曲의 국면이 있다.

둘째, 신라 향가와 엘리엇은 인물 제재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종교적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공간, 시간에 대한 인식을 성장시켰다. <모죽지랑가>와 <J.A. 프루프록의 戀歌>는 성자 형상 혹은 자화상에 해당하는 인

물을 통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성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전자의 시·공간이 전체적·추상적이었던 것에 반해 후자의 시·공간은 단편적·경험적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결국 서정주체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셋째, 신라 향가는 <찬기과랑가>에서 공간 인식을, <제망매가>에서 공·시간 인식을 주제로 삼았다. <찬기과랑가>는 시선이 닿는 곳 어디에나 기과랑의 자취가 남아있다는 인식으로부터 기과랑의 마음의 끝을 좇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완성시켰다. 주변 공간 요소와의 상호 작용이 세계 인식의 틀을 바꾸고 서정주체 자신의 본성도 뒤바꾸었다. 엘리엇의 시 가운데 <聖灰수요일>에 드러난 現世觀, 神觀과의 비교를 통해 ‘죽음’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었는데, <제망매가>는 ‘죽음’의 문제를 “죽살이길”과 “미타찰”의 공간·시간적 변별성과 樹木 비유의 개입으로써 그려내고 있다. 엘리엇의 머리나(Marina)>와의 비교를 통해 “삶을 버려 삶을 얻는다(Resign my life for this life)”는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여 각각의 작품에서 구원의 의미 차이를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一 然, 『三國遺事』(高麗大 晩松文庫本).

김명옥, 「엘리어트의 종교전환」, 『영미어문학연구총서 4-T.S. 엘리엇』, 민음사, 1978.

김우창, 「전통과 방법」, 『영미어문학연구총서 4-T.S. 엘리엇』, 민음사, 1978.

류 렬, 『향가연구』, 박이정, 2003.

송기호,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종교시」, 『신영어영문학』 39, 신영어영문학회, 2008.

이준학, 「조지 허버트의 종교시에 나타난 보편적 의식」, 『문학과 종교』 12

권 2호, 문학과 종교학회, 2007.

이창배, 엘리엇의 시세계, 『영미어문학연구총서 4-T.S. 엘리엇』, 민음사, 1978.

_____, 『T.S. 엘리엇 전집-시와 시극』, 동국대 출판부, 2001.

정갑동, 엘리엇의 생애에 미친 인도의 영향, 『T.S. 엘리엇의 시와 불교철학』, 동인, 2006.

최창호, 머리나(Marina), 『T.S. 엘리엇의 종교시-그 이해와 감상』, 중앙대 인문학연구소, 1999.

T.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Faber, 1976.

_____, Poems Written in Early Youth(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9).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Abstract

Comparative Reading between Shilla Hyangga and T.S. Eliot

Seo, Cheol-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ative reading between Shilla Hyangga and T.S. Eliot at the point of religious poetry : rejoice through despair and rebirth through death. the way of readings are three.

First, we read the birth of religious issue by comparison between Mojukjirangga(慕竹旨郎歌) and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 Second, comparing reiterations of religious Time and Space between Changiparangga(讚耆婆郎歌) and Ash Wednesday. Third, comparing the motivations to the Paramita between Jemangmaega(祭亡妹歌) and Marina.

Key words : Hyangga, English Poetry, Religious Poetry, Comparative Literature, T.S.

Eliot, a Theme of Character, Recognition about Space, Recognition about Time